
2017년도 장성군의회

국외 의정연수 결과보고서

<베트남, 캄보디아 / 2017. 4. 4. ~ 4. 10.(7일간)>



장 성 군 의 회

목 차

I. 연수 개요	2
II. 연수 일정	3
III. 연수 내용	
1. 연수국가 현황	4
• 베트남	4
• 캄보디아	6
2. 방문지별 주요 연수내용	7
【 베트남 】	
• 링엄사(영릉사) 문화 탐방	7
• 호이안 역사·문화·유적 탐방	8
• 다낭 정부종합청사 방문	11
• 다낭 문화관광 시설 체험 견학	13
• 현지 한국기업 공장 견학	15
【 캄보디아 】	
• 앙코르 유적지 탐방	16
• 킬링필드 사원 방문	20
• 톤레삽 수상촌 등 현지 문화 체험	20
IV. 연수 소감	22
V. 연수결과(총평)	29

2017년 장성군의회 국외 의정연수 개요

1 연수 개요

□ 연수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 연수목적

- 국외연수를 통해 다른 나라의 도시환경, 문화관광 자원 등에 대하여 비교견학 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을 도모하고,
- 비교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 및 개발하고자 함.
- 국제적 안목과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함

□ 연수기간 : 2017. 4. 4.(화) ~ 4. 10.(월) <7일간>

□ 연수인원 : 10명(의원 5, 직원 5)

□ 연수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성 별	비고
의 원	의 장	김 재 완	남	
	의 원	김 상 복	남	
	의 원	고 재 진	남	
	의 원	김 옥	여	
	의 원	차 상 현	남	
직 원	전문위원	김 종 수	남	
	주 무 관	남 재 상	남	
	주 무 관	김 춘 혜	여	
	주 무 관	이 민 숙	여	
	주 무 관	한 상 운	남	

구분	장소	상세일정
제1일 (04/04) 화	다낭	◎ 인천공항도착 - 탑승수속 ◎ 다낭 국제공항 도착
제2일 (04/05) 수	다낭	◎ 링엄사 ◎ 역사문화/유적탐방 : 호이안(유네스코 지정) - 풍홍의 집, 일본내원교, 띠엔키의 집 호이안 역사박물관, 관운장사당 방문 - 호이안 명물인 투본강 & 목공예 마을방문 ◎ 호이안 야경 문화 체험
제3일 (04/06) 목	다낭	◎ 다낭 정부종합청사 방문 ◎ 문화관광 시설 방문 체험 - 바나산 국립공원 & 테마파크 방문 ◎ 오행산(마블마운틴) 체험
제4일 (04/07) 금	다 낭 시엵립	◎ 한국기업 공장견학(스테인레스 제조공장) ◎ 캄보디아 시엵립으로 이동
제5일 (04/08) 토	시엵립	◎ 앙코르왓 문화재 탐방 - 앙코르왓 : 세계 7대 불가사의 - 앙코르 톰, 바이온 사원, 타프롬 사원 등 ◎ 시티투어 (야시장 체험)
제6일 (04/09) 일	시엵립	◎ 역사현장 탐방 - 킬링필드 사원, 실크농장 ◎ 현지문화체험 - 동양최대의 톤레삽 호수 - 수상촌 및 수상학교 방문
제7일 (04/10)	인 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1. 연수국가 현황

베 트 남

정식 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인도차이나반도의 동부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가 3,444km에 달한다. 면적은 33만 1210km², 인구는 9434만 8835명(2015년 현재), 수도는 하노이(Hanoi)이다.

주민은 베트남인이 90% 이상을 차지, 그 밖에 중국인과 53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종교는 불교가 80%, 가톨릭교가 9% 등이다.

국민총생산은 1990억 달러, 1인당 국민생산은 2,200달러이다.

베트남은 1당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공화제, 의회는 임기 5년의 단원제(498석), 정당은 공산당 하나이다.

 일반현황

- 국 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행정구역 :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 면 적 : 약 330,958Km(한반도의 약 1.5배), 경지면적 23%
- 기 후 :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 수 도 : 하노이(Ha Noi, 670만 명, 2011년 기준)
- 인 구 : 8784만(2011년 기준, 남: 4344만, 여: 4440만, 약 68.3% 농촌 거주)
- 주요도시 : 호찌민(752만 명), 하이퐁(188만 명), 다낭시(95만 명)
- 민 족 : 비엣족(깁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 만명)
크메르족 등 54개 민족
- 화폐단위 :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 시 차 : 2시간 늦음(G. M. T + 7시간)
- 외교관계 : 176개국과 수교 / 한국수교 '92년 12월 22일

캄보디아

정식 국가 명칭은 캄보디아 왕국이다. 수도는 프놈펜(Phnom Penh)이다.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반도 서남부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타이와 국경이 접해 있다. 면적은 18만 1,035km²로 남한의 약 1.8배이며, 한반도 전체의 80%이다. 남북의 길이는 450km, 동서의 길이는 580km이고, 해안선은 340km이다.

2011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인구는 약 14,952,665명이며, 인구밀도는 75명/km²이며 성비는 여성 100명 대비 남성 93.6명으로 여성 인구가 더 많다.

수도 프놈펜의 인구는 약 120만 명이며 면적은 375km²이다.

민족은 90%가 크메르(Khmer)족이며 그 외 소수민족으로는 베트남인, 중국인, 참(Cham)족, 고산족이다. 공식 언어는 크메르어를 사용하는데 지식층 및 비즈니스 계를 중심으로 50대 이상은 불어를, 청·장년층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종교는 불교이다.

국경일은 독립기념일인 11월 9일이다. 캄보디아의 국가모토는 국민(Nation), 종교(Religion), 왕(King)이다.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정부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한다.

의회는 양원제로 국회와 상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임기가 5년이며 123석이고, 상원은 임기가 6년으로 61석이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159억 달러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39 달러이다. 화폐단위는 리엘(Riel)이며, 1달러당 4.034리엘(2011년 4월 기준)이다.

■ 일반현황

- 국 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 수 도 : 프놈펜(Phnompenh)
- 위 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베트남, 라오스, 타이와 접경)
- 면 적 : 18만 1,035km²(남한 1.8배, 한반도 80%)
- 민 족 : 크메르족, 소수민족(베트남, 중국, 참족, 고산족)
- 언 어 : 크메르(Khmer)어
 - 지식층 및 비즈니스 계를 중심으로 불어 및 영어 통용
 - 화교 사회를 중심으로 중국어 통용
- 기 후 : 열대몬순, 고온다습
- 인 구 : 약 14,952,665명(2011년 기준)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종 교 : 불교(국교, 96.4%), 이슬람(2.1%), 기타(1.5)
- 교 육 : 6-3-3 제, 초등학교와 중학교(9년) 의무교육
- 화폐단위 : 리엘(Riel)

■ 비행 경로 : 인천 → 베트남 (5시간 소요) / 시차 : 2시간



2. 주요 연수내용

① 링엄사(영릉사)

- 베트남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바다로 목숨을 걸고 탈출했지만 안타깝게 태풍으로 익사하게 된다.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 약 68m(건물30층)의 해수관음상을 세웠다고 하며 해수관음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태풍이 한 번도 불지 않았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 영릉사는 2003년 지어졌으며 지은 사람, 건립 비용 등이 비밀에 부쳐서 '비밀의 사원'이라고 불리며,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과 함께 바다, 해변(미케비치), 시내경관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독특하게 해수관음상의 한 손에 호리병을 들고 있는데 이는 목마르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링엄사 해수관음상



영릉사에서 바라본 풍경



미케해변

❖ 시사점 ❖

- 베트남 전쟁의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음, 30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돈을 벌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를 건설하는 등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새삼 감사드립니다.
- ▶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피해, 부상, 사망 등 고통받는 많은 용사들, 가족들의 복지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함.

② 호이안 역사문화 유적

- 호이안은 16~19세기에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던 베트남의 도시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호이안은 16세기 중엽 이래 인도·포르투갈·프랑스·중국·일본 등 여러 나라의 상선이 기항하였고 무역도시로 번성하였고 당시에 거래된 물품으로는 도자기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현재 호이안의 복고적인 도시외관은 대부분 중국인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 호이안은 복고적인 도시의 분위기 때문에 최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오래된 가옥을 개조하여 멋스러운 마을로 변신하고 있으며, 유적으로는 풍흥 고가(古家), 쩐가 사당, 꾸언탕 가(家) 등이 있으며 중국인들의 회합장소로 사용된 복건회관, 무역도자기 박물관, 호이안 역사문화박물관이 있다.
- 특히 일본교로 불리는 '내원교'는 베트남 국보로 지정되어 베트남 지폐(이만동)에도 그려져 있는 문화유산이다.
- 삼국지의 주인공인 3사람 유비, 관우, 장비 가운데 유독 이곳에서는 관우를 최고의 장수로 칭송하며 사당을 지어 그를 기리고 있다.
- 호이안 명물인 투본강을 따라 목공예 마을, 도자기 마을을 방문하여 그들의 전통공예 전수과정과 작품을 감상함.



내원교



베트남 화폐(2만동)



투본강 야경모습



관운장사당



풍흥 고가(古家)

❖ 시사점 ❖

- 호이안은 복고적인 도시를 그대로 살려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옛날 전통 가옥을 보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올해 90세인 할머니가 도자기 한 점을 똑딱하고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그들의 전통 목공예 기술, 도자기 기술을 전수하고 마을을 상품하는 모습도 인상적임.
- 수많은 명함들이 고저택 벽면에 붙여져 있었고 미국 오바마, 우리나라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의 명함도 있다고 함.
- 투본강의 야경은 낮에 보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다른 곳에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수백 개의 풍등이 켜져 있고 투본강을 따라 풍등으로 만든 여러 동물 모습의 투본강을 화려하게 비추고 있었다.
- ▶ 삼국지 관우의 관운장사당을 보면서 현재 유네스코 지정을 신청 중에 있는 필암서원을 비롯하여 우리 장성의 대표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아곡 박수량, 노사 기정진 선생 등을 더욱 알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봄. 청렴교육, 성리학 공부, 드라마 촬영 등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어 유명 인사들의 명함이나 다녀간 흔적을 보여줬으면 함.
- ▶ 장성군도 ‘문불여 장성, 선비의 고장’으로써 선비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름 선비문화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좀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 베트남 호이안에 투본강이 있다면 우리 장성에는 황룡강이 있음 투본강의 야경을 보면서 황룡강에 황룡이 승천하는 야경 조형물을 설치하여 밤에도 찾아올 수 있는 엘로우시티 장성을 구상해 봄.

베트남 다낭시

베트남 최대 상업 및 항구도시이자 베트남의 다섯 개의 직할시 중 하나이고, 베트남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다낭은 남중국해와 맞닿

아 있다. 다낭의 역사는 베트남의 문화가 존재한 4천 년에 비하면 비교적 신생 지역이라 할 수 있다. 1847년 세실(프랑스어: Cécille) 장군이 파견한 프랑스 배가 로마 가톨릭 선교사의 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다낭을 폭격하였다. 1858년 8월, 나폴레옹 3세의 명령에 따라 프랑스 군대가 상륙하여 이 지역을 식민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다낭은 투란(프랑스어: Tourane)이라고 불렸다. 다낭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5대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다낭은 남베트남 군과 미군의 주요한 공군 기지로 활용되었다. 그때부터 다낭의 인구는 1백만 명이 넘게 증가하였다. 1968년 후에 전투의 여파로 후에에서 많은 사람이 다낭으로 피신하였다. 1997년 이전에 다낭은 쑹남-다낭 성의 일부였다가, 1997년 1월 1일 베트남의 네 번째 직할시가 되면서 쑹남 성과 분리되었다.

③ 다낭 정부종합청사

-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공산당원이 최고의 직업(직장)이고 그다음으로 경찰이라고 한다. 공산당원의 차량 번호판은 빨간색으로 일반 차량 흰색과 구분이 된다. 비록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북한과는 달리 매우 자유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청사 앞 분수대에 남녀 노소가 댄스 수업(사교춤)을 받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춤 연습을 하기도 했다.
- 다낭시 종합청사는 30층 건물로 외관이 우리가 숙박하는 호텔보다 더 화려해서 청사라고는 믿겨지지 않았다. 아쉽게도 사회주의공화국이라 외부인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 베트남의 교통수단은 단연 오토바이, 이동수단의 80%이상이 오토바이로 거리가 경적소리로 요란하다. 차량은 전량 수입으로 관세가 많이 붙어 우리나라 차량 가격의 두배 정도 된다고 하니 차량은 곧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교통 신호 체계는 잘 갖춰지지 않아 일방통행이 많고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우선인 듯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하니 참 신기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가 느껴졌다.
- 다낭시를 흐르고 있는 강의 이름은 ‘한강’이라고 한다. 서울에 있는 한강과 이름이 똑같고 느낌도 비슷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용다리’였다. 다리위에 한 마리 용이 불과 물을 뿜어대고 몸 색깔을 황색, 녹색으로 갈아입었다. 다리를 지탱하는 난간 부분을 용 모양으로 구상하여 또 하나의 조형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어쩌면 장성의 황룡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청사 앞 분수대



다낭 정부종합청사



용다리 배경



물을 뿜는 황룡

❖ 시사점 ❖

- 황룡강 르네상스를 표방하고 있는 장성군에 베트남 용다리 조형물은 앞으로 옐로우시티 장성의 황룡 조형물을 어떻게 구상해야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음.
- ▶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반세기 이상 도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
빈센트의 봄, 노란 꽃잔치 등 옐로우시티 장성에 관광객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으로 사료됨.

④ 바나산 국립공원 & 테마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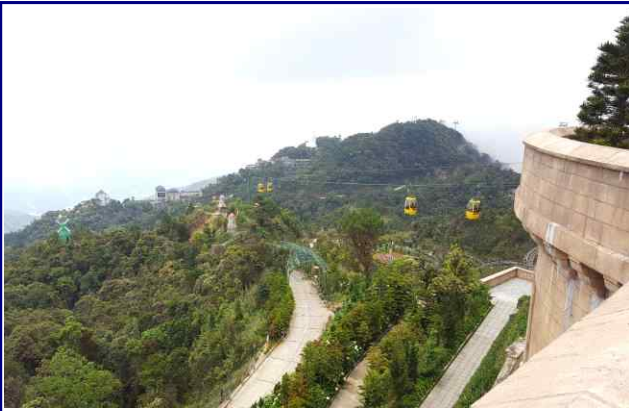
- 해발 약 1,500m 바나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에 프랑스 마을이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상상하기 힘들.
세계 최장 길이의 바나산 케이블카에 탑승하고 40분 남짓 동안 울창한 녹색 산림을 구경하면서 눈에 피로가 확 달아남. 처음에 고소 공포증을 호소하던 직원도 긴 케이블카 여행에 안정을 되찾아 멀리 바라다 보이는 경치에 하나가 된다.
- 프랑스 마을을 옮겨 놓은 듯한 유럽식 건축물들과 각종 놀이 시설물들이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러시아의 기술력과 자본을 들여서 지었다고 한다.
- 많은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많았는데 입장료가 우리돈 4만원 정도 되니 베트남 서민들은 감히 오기 힘든 곳이기도 하다.



바나산 국립공원



프랑스 마을 거리



바나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위에서 바라본 프랑스 마을

❖ 시사점 ❖

- 바나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보면서 여수의 케이블카를 떠올림
많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개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중임. 하지만 막대한 예산, 환경문제, 수익성 창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여수시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꼭 타 보고 싶은 해상케이블카로 전국적 명성이 알려져 있다.
- ▶ 장성의 전망대 설치 계획도 위 사례와 유사하다고 생각됨.
전망대를 설치해서 다른 시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여 하나의 명물이 된다면 금상첨화.
하지만 설치비용, 관리비용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남는다면 장성군의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음.
이번 용역에 객관적 실익이 정확히 반영되어 장성군 미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 우리 군 축령산은 걷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주는 원시림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걷는 것 이외에 다리가 불편한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해 천천히 올라가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설(전동차,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음.
너무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

⑤ 현지 한국기업 공장 견학 : ㈜스타아미

-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현지 기업체를 방문함.
금속 주방기기 제조업체로써 1996년 설립하여 현재 종업원 50여명으로 연 매출액은 30억 정도 된다고 한다. 한국의 비싼 인건비로 인해 베트남으로 제조공장을 옮겨온 김종국 사장님과 그의 가업을 이어받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사위를 만났다.
-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방기기 강철을 절단하고 솜씨 좋게 용접하는 젊은 베트남 청년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최고다. 그 이유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베트남에서의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과 헌신한 점들로 인해 크게 추앙받아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는 높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같은 기업체라도 일본인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한국 기업체는 아주 적게 부과한다고 한다.



현지공장 앞에서



제조현장 설명(부사장)



주방기기 제조 현장



주방기기 제조 현장

❖ 시사점 ❖

- 외국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보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한편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움
- 5월 9일에 치러질 대선의 큰 공약 이슈도 일자리 창출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여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

⑥ 앙코르 유적지 탐방

○ 앙코르 와트(Angkor Wat)

- 앙코르(Angkor)는 산스크리트어 나가라에서 파생된 도읍이라는 의미의 노코르(Nokor)의 방언이고, 와트(Wat)는 크메르어로 사원이 라는 뜻이니 앙코르 와트는 '사원의 도읍'이라는 뜻이 된다고 한다.
'사원의 도읍'이라는 의미인 앙코르 와트라는 이름은 16세기 이후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
- 앙코르 와트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에 위치한 사원으로, 12세기 초에 수르야바르만 2세에 의해 옛 크메르 제국의 도성으로써 창건되었다.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으로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 신에게 봉헌되었고, 나중에는 불교 사원으로도 쓰인 것이다. 앙코르 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종교 건축물으로써 옛 크메르 제국의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이 가장 잘 표현된 유적이다.
- 이 사원은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황제 수르야바르만 2세에 의해 약 30년에 걸쳐 축조되었다. 사원의 정문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힌두교 교리에 의한 것으로 왕의 사후세계를 위한 사원임을 알게 한다.
- 캄보디아의 지리적 조건으로 볼 때 이 거대한 돌들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또한 200개가 넘는 사원들을 축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으니 왕들의 권력이 마치 신처럼 여겨졌음을 짐작케 한다.
- 이웃나라 태국에게 민족들이 모두 몰살당하고 16세기 이후로도 안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연중 따뜻한 날씨, 태풍이 없는 기후 조

건과 외부의 침입이 없어 지금까지 보존이 잘 되었다고 한다.

- 이런 사원들이 서양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에 앙리 무오의 여행기가 출판됨으로써 가능해 졌다고 한다.



현장 설명하는 가이드



사원 주변 인공 호수



도굴꾼에게 목이 잘린 석상들



앙코르 와트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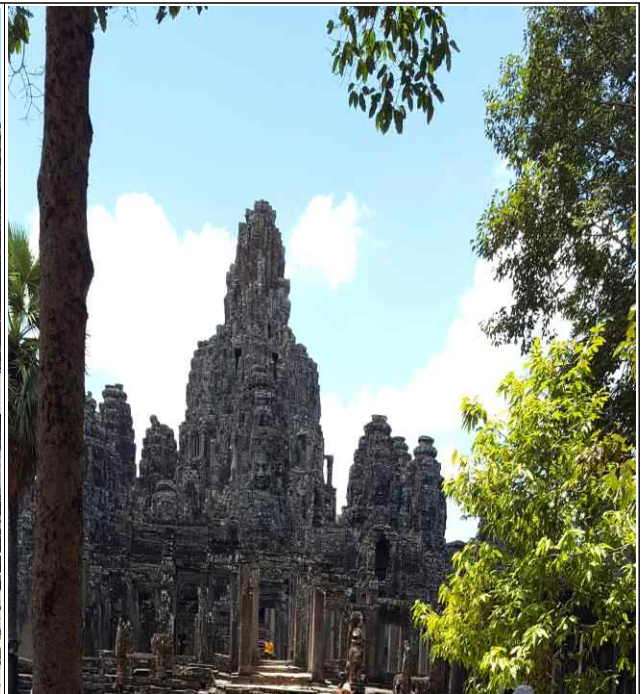
○ 바이욘(Bayon) 사원

- 바이욘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군 중의 하나로, 힌두교, 불교 혼합의 사원유적이다. 앙코르 톰의 중앙 부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이욘의 호칭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지만, 크메르 발음으로는 ‘바욘’ 이고 ‘아름다운 탑’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 바이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중앙 사당을 시작으로, 탑의 4면에 조각되고 있는 인면상(바이욘의 사방상)이다. 인면상은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모방하고 있었고 모든 탑에 사방상이 조각되어 있다.
- 바이욘은 앙코르에서 세운 마지막 국사이자, 대승불교의 사원으로

부처에게 봉헌된 유일한 사원이다. 사원의 탑에 있는, 200여개의 거대한 얼굴상들의 유사성은 자야바르만 7세 자신의 얼굴이라는 추측하고 있다. 혹자는 관세음보살의 얼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야바르만 7세의 모습



바이온 사원

○ 타프롬(Ta Prohm) 사원

- 이 유적은 뿔나무과 수목에 의한 유적의 침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캄보디아는 유적의 복원을 위해 많은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복원 기술이 있는 나라들은 각 사원별로 할당을 받아 복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유적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복원 참여하려는 것보다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의 축조 기술들을 캐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유적을 파괴하고 있는 수목들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이유가 유적을 감싸고 있는 뿌리가 갑자기 수축하면 유적이 무너지고,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면 뿌리가 커져 그 또한 유적이 무너진다고 한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은 거목들을 제거하지 않고 성장 억제제를 써서 거의 죽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나중에는 무너지고 있는 석재를 다시 복원해야 할 것이다. 이 유적만의 독특한 매

력이 손상될 수 있고, 그냥 방치하면 유적은 더욱 더 심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복원작업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 미국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한 2001년 작품인 영화 ‘툼레이더’의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져서 많이 이들이 다녀간다고 한다.



무너져 내린 사원 돌 더미



복원 중인 사원모습



지붕에 뿌리내린 사원



뿌리로 사원이 뒤덮인 모습

❖ 시사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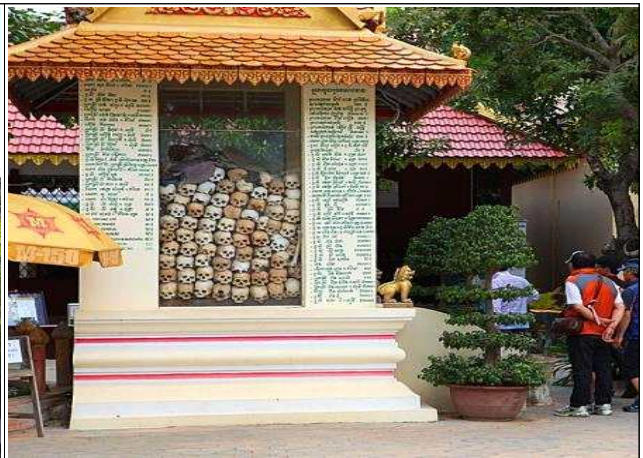
- 장성군 총 문화재 지정현황 : 51개소
 - 국가지정 10개소(보물2, 사적4, 천연기념물3, 명승1),
 - 도지정 25개소(유형16, 기념물8, 무형문화재 1) - 문화재자료 16개소
-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지정을 추진 중에 있고 백양사, 고산서원, 입암산성 등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나, 비지정 문화재는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사례 발생. 미래 후손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복원 지원이 필요할 것임.

7 킬링필드(Killing Field) 사원

- 킬링필드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민주 캄푸차 시기에 캄보디아의 군벌 폴 포트(본명 살로트 사르)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라는 무장 공산주의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을 말한다. 원리주의적 공산주의 단체인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간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1/3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강제노역을 하게 하거나 학살하였다고 한다.
-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했지만 같은 민족을 이렇게 학살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일까? 수백 개의 해골을 쌓아 놓은 해골탑이 왠지 무섭게 느껴진다.



킬링필드 사원



학살당한 주민 해골탑

❖ 시사점 ❖

- 킬링필드 사원 앞에서 5.18 민주항쟁이 떠오름. 같은 민족을 무차별 학살하는 캄보디아 군벌과 광주시민을 무차별 총격한 80년대 군벌들이 비슷하다. 하지만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안하무인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

8 현지문화체험 : 톤레삽 호수

- 동양 최대의 호수 톤레삽 호수는 전라남도 크기의 호수라고 한다.

30분 이상 배를 타고 가도 수평선이 그대로 보였다. 중국 황하강처럼 황토색 호수가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

- 이곳에는 베트남 내전 때 탈출해 바다를 떠돌던 보트피플이 모여 지금의 수상 가옥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잡는 물고기의 어획량이 우리나라 어획량의 2배 이상이라고 하니 호수의 규모가 어마어마함이 상상할 수 없다.
- 아직도 ‘천원’, ‘1달러’라고 외치며 물건을 파는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런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 우리나라 다일공동체에서는 부모가 일하러 나갈 때 유치원처럼 아이들을 돌보아 준다고 한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건물



톤레삽 호수 수상가옥

❖ 시사점 ❖

- 톤레삽 호수에 사는 수상족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됨.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이가 있음을 알리고 사소한 물건도 소중함을 가르쳐야 함.(교육의 중요성)
- ‘1달러’를 외치며 물건을 파는 어린 아이들의 교육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일까? 6.25전쟁 이후 미군에게 초코릿을 구걸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느끼며 〉

장성군의의회 의장

김 재 완

2017년 장성군의의회 국외 의정연수를 베트남, 캄보디아 5박 7일 일정으로 나서게 되었다. 막상 베트남으로 간다고 하니 월남전에 참전했던 옛 추억이 생생히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다.

이번 연수는 과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답사했던 사례와는 달리 동남아시아의 역사 유적과 그들의 문화 및 생활환경, 그리고 현재 새롭게 도약 중인 관광시설 등을 둘러보고 장성군 발전에 필요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연수의 목적을 두었다.

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본래의 연수 목적을 달성하면서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사이 비행기는 베트남 다낭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 날씨와는 달리 이곳 날씨는 25도 이상 약간은 더웠고 활동하기 좋은 기후였다.

전에 월남전에서 보았던 베트남은 이미 이곳은 없었다. 잘 놓아진 도로, 수많은 오토바이, 깨끗해진 거리 풍경이 상전벽해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한다. 다낭시를 흐르는 강위에 용 한 마리가 불을 내뿜고 있다. ‘용다리’라고 부르는 커다란 조형물이 밤 풍경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황룡강 르네상스를 표방하는 장성군에 걸맞은 조형물로 이런 아이디어를 장성군에서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영릉사 해수관음상은 베트남 전쟁을 피해 자유를 찾아 바다로 탈출하다 태풍으로 익사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베트남 전쟁의 수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남의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나를 포함한 30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어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어린 세대들은 알까 싶다.

베트남 전쟁의 고엽제, 부상 등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전우와 가족들의 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국가인 캄보디아, 캄보디아 하면 ‘킬링필드’의 대학살, 가난한 국민들, 부패한 권력이 떠오르며, 마지막으로 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찬란한 문화유적지 앙코르 와트가 생각난다.

캄보디아 씨엠립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며 아직도 이곳은 부정부패가 만연함을 몸소 체험했으며, 킬링필드 속에서 국민들을 구해줬던 지금의 정권 역시 부패로 물들었다니 이곳 국민들이 불상하기 그지 없다.

그 찬란했던 역사 속 앙코르 제국의 영광을 담은 앙코르 와트를 비롯한 타프롬사원 등이 현재의 비참한 현실과 너무나도 대조적임에 안타까웠고 어서 빨리 캄보디아의 미래가 밝게 빛나길 기원해 본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다는 톤레삽 호수의 수상 가옥에 사는 어린이들 1달러, 천원을 외치며 물건을 파는 어린 아이들, 교육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쌍한 아이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너무 호강스럽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현재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게 했다.

연수를 마무리하면서 함께한 동료 의원, 연수에 필요한 자료와 일정 등 꼼꼼하게 챙겨주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배려와 협력으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끝내고 귀국할 수 있어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길지 않은 기간의 현장탐방이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장성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대해 본다.

〈베트남 다낭과 캄보디아 앙코르 왓트를 다녀오면서〉

장성군의회 전문위원

김 종 수

○ 4월 4일 저녁 다낭에 도착하여 호텔에 투숙한 후 다음 날인 5일부터 본격적으로 다낭 시내투어를 시작하였다.

- 손자해변에 위치한 65미터의 베트남 최대불상 “링엄사”를 보면서 일단은 장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기는 우리나라 경북 영천 만불사에 있는 36미터 보다 훨씬 더 크다. 특이하게도 이 불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부처님 몸 속 복장으로 들어가면 법당이 나오고 여기서 불공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불공을 드렸다.
- 목공예 마을에서는 우리나라 80년대 생활상을 볼 수 있었으며 목공예 기술은 섬세하고 장인정신이 뛰어나 지금도 90세 드신 할머니가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여 깜짝 놀랐다.

○ 4월 6일 정부종합청사와 바나산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였다.

- 먼저, 정부종합청사는 호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건물 모양이 호텔보다 더 예쁘고 곡선을 모양을 내어 지어져서 정부종합청사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다만 베트남 국기가 있어서 알 수 있을 정도였음.
- 바나산 국립공원은 케이블카를 한 40여분 타고 가는 긴 코스였으며 산 정상부근에는 프랑스 마을과 볼거리, 먹거리 등이 준비되어 아주 흥미로웠으며, 특히 유럽스타일의 건물이 많이 건립되어 아주 이색적이었음.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었음. 우리 장성군 축령산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이런 시설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 저녁에는 용다리에서 불과 물이 뿜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용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4월 7일 숙소에서 2시간 소요되는 꾡남에 위치한 한국기업체를 방문하였다.

- 스테인레스를 제조하여 부엌가구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체 호아칸을 방문하였는데 직원수는 한 30여명 정도 되고 장인과 사위가 경영하고 있었다. 인건비가 싸서 이 곳으로 왔다고 하였으며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으며 사장 등도 반갑게 맞이하여 좋았다.

○ 4월 8일에서 9일까지 앙코르왓, 바이욘, 타프롬 사원, 킬링필드 사원, 톤레삽 호수 등을 방문하였다.

-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70년대를 보는 느낌이었으며, 앙코르왓은 1000여년 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였다. 특히 정면에서 볼 때 탑이 3개 보였는데 옆면에서 볼 때 5개가 있어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 도 없었다.
- 톤레삽 호수는 동양 최대의 저수지로 면적이 최대 13만km²로 장대하기 보다는 장엄하여 바다같이 보였으며, 수상촌 마을은 가이드 말에 따르면 저수지 흙탕물을 먹고, 빨래하고, 목욕하는 등 생활한다고 하고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적이 없다고 하여 참으로 가엾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많은 장소 등을 방문하였는데 두서없이 생각나는 방문지만 몇 개를 적었다. 이번 국외 의정연수의 목적은 다른 나라의 역사, 문화관광 자원 등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군정 및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번 나는 무엇보다는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문화재를 보호와 관리에 철저히 하고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족하고 행복한 나라임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시켜야겠다.

〈 소중한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며 〉

장성군 의회사무과

주무관 남 재 상

다낭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리자 느껴지는 후텁지근한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든다. 늦은 밤 도착한 다낭 호텔에 여정을 풀고 잠을 청해 보지만 낯선 환경에 뒤척거리며 겨우 잠이 들었다. 요란한 경적소리에 잠을 깨서 시내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마치 일개미들처럼 이리저리 움직인다. 베트남의 이동수단은 80%이상이 오토바이,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으로 연료는 싸다고 한다. 버스는 있지만 거의 보기 힘들었다. 무질서하게 달리는 오토바이, 교통신호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은 도로, 보는 사람을 위태롭게 했지만 사고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니 신기하기만 하다.

다낭시를 흐르는 강의 이름이 ‘한강’ 이라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처음에 농담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정표에 영어로 한강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강을 바라본다. 정말 서울의 한강 모습과 비슷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용다리’ 였다.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다리위에 한 마리 용이 불과 물을 뿜어대고 몸 색깔을 황색, 녹색으로 갈아입었다. 다리를 지탱하는 난간 부분을 용 모양 조형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장성의 황룡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공산당원이 최고로 대접받는 곳이라고 한다. 차량 번호판까지 일반인과 구분된다고 한다. 다낭정부종합청사는 30층 건물로 외관 디자인이 훌륭하게 꾸며놓아 바로 옆 우리가 숙박한 호텔보다 화려해 보였다.

과거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던 호이안은 당시의 나라의 교역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호이안은 복고적인 전통 문화유산으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곳에는 오래된 전통가옥, 역사박물관, 관운장사당, 내원교 등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많은 유명 인사들도 찾아왔음을 고저택 한쪽 벽에 붙여놓은 명함을 보고 알 수 있었고 ‘내원교’라고 불리는 다리는 베트남 국보로 지정되어 베트남 2만동 지폐에도 그려져 있었다.

삼국지 관우의 관운장사당을 보면서 현재 유네스코 지정을 신청 중에 있는 필암서원을 비롯하여 우리 장성의 대표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아곡 박수량, 노사 기정진 선생 등을 더욱 알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호이안의 밤 풍경은 낮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수많은 풍등으로 형형색색 꾸며져 있고, 투본강을 따라 장식된 동물 조형물은 보고 황룡강에 황룡을 설치하고 싶은 심정이다.

다음날 해발 1,500m의 바나산 국립공원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세계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라는 말이 실감나듯이 40여분 남짓 올랐한 산림 위를 운행했다. 프랑스 마을을 옮겨 놓은 듯한 유럽식 건축물, 각종 놀이시설 등 새로운 풍광에 연신 사진을 찍어본다. 러시아 기술과 자본으로 지어진 이곳은 입장료가 우리 돈 4만원 이상 되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최고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한류도 한몫을 한 것 같다. 단적인 예로 같은 기업체라도 일본 기업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한국 기업은 아주 적게 부과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일본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가 찾은 기업체는 스테인레스 주방기기를 만들고 있는 한국 기업체였다. 인건비로 인해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겨 왔다고 하는데 현지 베트남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취업이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두 번째로 방문한 캄보디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씨엠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을 볼 때 얼마나 부패한 나라인지 알 수 있었다. 과

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과연 그들에게 존재할까? 앙코르와트, 바이온 사원 등 과거의 찬란한 문화가 있었기에 현재 그들이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캄보디아하면 ‘킬링필드’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크메르 루즈 정권이 200여만명을 살해한 인류역사상 가장 잔악한 사건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많은 정치인, 지식인들이 제거되어 캄보디아의 지식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캄보디아 부모들은 자식들이 배우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권력층들의 부정축재와 국민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어디를 가든 돈을 구걸하는 아이, 1달러를 외치며 물건을 파는 아이, 안마를 핑계삼아 구걸하는 아이, 측은한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그들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교육이라 생각한다. 풍부한 자원이 있는 캄보디아가 옛 명성을 되찾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본다.

킬링필드 사원 앞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이 떠올랐다. 같은 민족을 무차별 학살하는 캄보디아 군벌과 광주시민을 무차별 총격한 80년대 군벌이 비슷하다.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은 그들을 볼 때 이번에는 말로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베트남, 캄보디아를 보면서 과거 일제의 식민지시절의 아픔, 이념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참혹함, 군벌의 독재로 고통 받았던 우리의 역사와 비슷함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우리 선배들이 자랑스러웠다.

이번 연수를 통해 문화와 역사의 소중함,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청렴의 자세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나의 일에 감사하며 지금의 나의 일이 최고의 행복임을 새삼 깨닫게 해 준 이번 연수에 함께 했던 의원님, 동료 직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번 국외 의정연수는 5박 7일 동안 2개 국가를 방문하면서 덥고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문화, 관광, 역사, 환경 등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수에 참석한 의원들과 직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이 결과보고서가 향후 의정수행 활동 및 군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처녀들이 한국에 시집을 많이 와서 ‘사돈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 미래를 주목받는 베트남은 한국 간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려한 역사와 아픔의 캄보디아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막연하게 우리보다 낙후된 후진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두 나라의 국민성을 이해하고 수 백년 이어온 그들의 문화와 역사, 환경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옐로우시티 조성,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더 활짝 꽃피게 할 수 있는 많은 생각과 정보를 얻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성군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연수소감을 마친다.

2017. 4.

장성군의회 의 장 김 재 완
의 원 김 상 복
고 재 진
김 옥
차 상 현